

## 세종대 의원 활동 연구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sup>1</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 <sup>2</sup>제한동의학술원  
<sup>3</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up>4</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송지청<sup>1, 2</sup> · 엄동명<sup>3, 4</sup>\*

### A Study on Activities of Doctors in King Sejong Period -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Song Jichung<sup>1, 2</sup> · Eom Dongmyung<sup>3, 4</sup>\*

<sup>1</sup>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2</sup>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4</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Doctors are obviousl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in medical history. Doctors are who treat patients and disease and the authors for medical records or books. Especially doctors in traditional medicine mostly tried to write medical books for new idea or their experiences or leave their medical records for treatments, medication, prescription and so on.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explained Korean or Chinese medical history of traditional society through those books or documents rather than doctors themselve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as massive records for history, politics, society, culture, etc. Relating to medical histor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re are several researches about disease of King, disease itself, the methods of treatment and so on, throug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re are few on activities of many doctor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ethods** : I tried to find out the names who had some roles of medicine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out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 could get 35 doctors and browsed 35 doctor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gain. Finally, I could have lots of articles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lated to 33 doctors(2 doctors had no records about medicine even they were doctors).

**Results** : I categorized 2 ways of those articles; medical activities, non-medical activities. For medical activities, I got subcategories for medical activities; medical maltreatment, treatment for King, royal family, bureaucrat, ambassador. I also got subcategories for non-medical

activities; publishing medical books, ambassador as a doctor, medical training, things related to hot spring, food therapist, veterinarian.

**Conclusions** : Medical history of Joseon Dynasty in Korean medical history has somehow been recorded by medical books such as *Hyangyakjipseongbang*, *Euibangyuchwi*, *Euilimchwalyo*, *Dongeuibogam*, *Jejungsinpyeon*, *Dongeuiseubowon*, etc. So I have concerned that there are massive records on doctors activitie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ried to focus on their various activities through this research.

**Key Words**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Annals of King Sejong*, Doctors, Activity

## I. 서론

의학사의 연구대상으로서 의사(醫師)는 다른 대상보다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의학사의 여타 연구대상인 의학이론, 환자, 질병, 의서 등이 모두 의사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 의사는 의서를 저술하여 자신의 진료사항이나 의학사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학사나 한국의학사에서는 의사들의 구체적인 의료활동을 조망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남긴 서적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의사들의 의학관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사료들 속에는 의사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기록들은 의서의 저자로서 의사가 아닌 의료활동의 주체로서 의사를 살펴보는 데 근거가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이하 『실록』이라 함) 방대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주요 텍스트이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한 인물의 의료행위나 의술 등을 조명<sup>1)</sup>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승정원일

기(承政院日記)』와 비교하여 의학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연구<sup>2)</sup>(김훈, 1997; 2009; 윤한룡, 2001; 이해웅, 2006; 2011; 2012; 2013; 강도현, 2010; 이상원, 2011; 윤석희, 2012; 구현희, 2012; 송지창, 2015)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록』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균왕의 질병이나 일반 질병 자체 또는 질환에 대한 치료법 등을

지. 2009. 30(2).

방성혜, 차용석, 김남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주요 외용제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2) 김훈.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윤한룡, 윤창열.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1. 14(1).

이해웅. 朝鮮時代 顯宗, 肅宗, 景宗, 英祖의 疾病에 대한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高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2).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2).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2).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윤석희. 학질의 개념과 말라리아의 관계 연구 : 소현세자의 질병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구현희, 오준호. 질병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된 조선시대 목욕요법 연구. 민족문화. 2012. 40.

송지창, 엄동명. 조선(朝鮮) 세종대(世宗代) 의원(醫員)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 Rd, Iksan City, Cheonbuk, ROK

Tel : 82-63-850-6941 Fax: +82-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Received(2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1) 오준호 외 3인.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대한한의학회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특정시기 활동한 의원들에 중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였다.

『실록』에는 의원들의 의료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이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어 『태조실록(太祖實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임금이 편치 못하므로 의관(醫官)을 불러 왔는데, 곧 예궐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24일에 전의감(典醫監) 관원 오경우(吳慶祐)를 청해(青海)에, 김지연(金之衍)을 웅진(甕津)에, 장익(張翼)을 영해(寧海)에, 양홍달(楊弘達)을 축산(丑山)에 유배하게 하였다가 조금 뒤에 홍달을 소환하였다.<sup>3)</sup>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상호군(上護軍) 배상문(裴尙文)의 아비 나이가 88세이니, 매년 봄·가을에 역마를 타고 돌아가 근친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술과 고기를 주어 혜양(惠養)하게 하라.”

하였다. 상문(尙文)은 김해부(金海府) 아전인데, 의술로 진출되어 임금이 알아줌을 받아 정3품에 이르고 항상 내약방(內藥房)에 있었다. 이에 인연하여 총애를 사서 조관을 멸시하여 말하기를,

“도승지는 바랄 수 없지마는 다른 승지(承旨)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김해(金海)에 갈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시켜 결상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여 당상관(堂上官)과 다름이 없었다.<sup>4)</sup>

이처럼 『실록』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의사들의 출신지역이나 출사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의사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록』 중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의사(이하 의원이라 함)들의 행적을 쫓아가고자 하였다.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의학 관련 인물들은 모두 35인이었는데, 35인을 다시 『실록』 전체에서 검색하여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였고<sup>5)</sup>, 이 중 33인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이들의 활동내용을 진료영역 활동과 진료영역 이외의 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II. 본 론

### 1. 진료영역 활동

『실록』을 통해 무엇보다도 왕을 진료한 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태조는 양홍달(楊弘達)을 아껴 자신이 아플 때마다 양홍달에게 치료를 받았다<sup>6)</sup>, 태종은 두 어깨가 몹시 아파서 박윤덕(朴允德)에게 뜸 시술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sup>7)</sup>, 자신이 앓던 증기치료에 온천욕이 좋다는 양홍달의 권유를 따르고자 한 일도 있었다<sup>8)</sup>. 세종은 자신의 병이 차도가 있자 병을 살핀 양홍달과 조청(曹廳)에게 안장을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고 박윤덕과 노중례(盧重禮)에게는 말 1필씩을 하사한 일이 있었으며<sup>9)</sup>, 증기가 났을 때 노중례와 전순의(全循義)에게 직접 치료받은 일이 있었다<sup>10)</sup>. 문종은 즉위 다음해부터 증기질환을 앓아 고생하였는데 전순의와 변한산(邊漢山)에게 화농된 증기를 은침으로 짜내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sup>11)</sup>, 또한 세조는 자신

5) 이 중에 黃順之, 李昺에 대한 기록은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黃順之에 대한 기록은 그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며, 李昺은 判典醫監事였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의학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6) 定宗 1년 3월 13일 11번째 기사

7) 世宗 1년 4월 16일 6번째 기사

8) 太宗 2년 9월 19일 1번째 기사

9) 世宗 7년 8월 26일 2번째 기사

10) 文宗 즉위년 4월 6일 4번째 기사

11) 文宗 2년 5월 14일 2번째 기사

3) 太祖 6년 10월 22일 1번째 기사

4) 世宗 30년 4월 19일 2번째 기사

의 몸이 편치 않자 진순의를 불러 탕약(湯藥)을 감독하여 올리게 하였다<sup>12)</sup>.

왕 뿐만 아니라 왕가(王家) 사람들을 진료한 의원들에 대한 기록도 다수 있었다.

우선 대군(大君)들을 진료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태조의 넷째 아들인 회안대군(懷安大君)은 태종대에 대병을 앓았는데 전의감(典醫監) 의원 양홍달이 직접 가서 진료한 일이 있었다<sup>13)</sup>. 태종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은 태종대에 병이 났을 때 정종하(鄭從夏)의 시탕(侍湯)으로 진료 받은 일이 있었고<sup>14)</sup>, 세종대에 노중례의 병문안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sup>15)</sup>, 좌군(左軍) 노비 윤이와 정을 통하다 윤이가 옥에 갇힌 일로 근심과 번민으로 병이 나자 내의(內醫) 노중례에게 진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sup>16)</sup>.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세종대에 병들었을 때 원지(元智)의 진료를 받은 바가 있었고<sup>17)</sup>,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은 태종대에 부스럼에 걸려 병이 심해졌을 때 충녕대군(忠寧大君; 후에 세종)이 거느리고 온 원학(元鶴)의 진료를 받았는데<sup>18)</sup>, 이 때 원학 말고도 양홍달, 조청, 박거(朴居) 등의 진찰도 함께 받았다<sup>19)</sup>. 세종의 둘째 아들인 진평대군(鎭平大君; 후에 세조)은 세종대에 창진(瘡疹)을 앓았을 때 양홍달, 조청, 노중례의 진찰을 받았고<sup>20)</sup>,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은 단종대에 말에서 낙상하여 다친 일로 김지(金智)의 진료를 받았으며<sup>21)</sup>,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은 세종대에 배상문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고<sup>22)</sup>,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은 세종대에

병을 앓자 노중례, 배상문, 양홍수(楊弘濬), 진인귀(全仁貴), 전순의, 김지의 진찰을 받았다<sup>23)</sup>. 이 외에도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인 서산군(瑞山君) 이혜(李譏)는 문종대에 강화도에 있으면서 병을 앓았을 때 내의 조흥주(趙興周)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고<sup>24)</sup>, 세종의 신빈(愼嬪) 김씨 5남인 밀성군(密城君)은 문종대에 병을 앓아 전순의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었으며<sup>25)</sup>, 세종의 손자인 정양군(定陽君)은 세조대에 병을 앓았는데 김지와 전순의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sup>26)</sup>.

왕가 진료 중 내명부(內命婦) 진료에 대한 의원 진료활동 기록도 있었다.

태종의 왕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가 난산으로 고생하였을 때 양홍달, 조청 등이 진료하였으며<sup>27)</sup>,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풍병을 앓았을 때 양홍수, 노중례 그리고 의녀(醫女) 소비(召非)의 진료를 받았다<sup>28)</sup>. 의원들의 진료활동은 왕비뿐만 아니라 왕비의 친척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소헌왕후의 어머니인 순흥 안씨가 병중에 있을 때 노중례의 진료를 받은 바가 있었고<sup>29)</sup>, 외삼촌인 안수산(安壽山)이 종기를 앓았을 때 박거가 뜸을 뜬 일이 있었다<sup>30)</sup>.

의원들은 신하들도 진료하였다.

김유지(金有智)는 세조대에 왕명을 받고 관압사(管押使)를 치료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sup>31)</sup>, 전순의와 함께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을 진료한 기록이 있다<sup>32)</sup>. 김지는 단종대에 당시 경기도 관찰사의 한열병(寒熱病)을 구료하였고<sup>33)</sup>, 박윤덕은 세종

12) 世祖 10년 10월 6일 1번째 기사  
13) 太宗 1년 5월 17일 1번째 기사  
14) 太宗 18년 6월 4일 3번째 기사  
15) 世宗 3년 7월 3일 2번째 기사  
16) 世宗 10년 1월 12일 2번째 기사  
17) 世宗 20년 9월 5일 1번째 기사  
18) 太宗 18년 2월 4일 1번째 기사  
19) 太宗 18년 2월 7일 1번째 기사  
20) 世宗 13년 9월 23일 2번째 기사  
21) 端宗 1년 2월 17일 1번째 기사  
22) 世宗 26년 12월 11일 5번째 기사

23) 世宗 22년 6월 21일 5번째 기사  
24) 文宗 1년 2월 16일 2번째 기사  
25) 文宗 2년 4월 4번째 기사  
26) 世祖 8년 11월 1일 4번째 기사  
27) 太宗 12년 6월 23일 1번째 기사  
28) 世宗 22년 4월 10일 2번째 기사  
29) 世宗 26년 9월 25일 3번째 기사  
30) 世宗 16년 8월 20일 4번째 기사  
31) 世祖 5년 2월 29일 3번째 기사  
32) 世祖 7년 4월 17일 1번째 기사  
33) 端宗 2년 6월 4일 1번째 기사

대에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사신 이상(李相)이 인후 병을 앓자 왕명으로 그를 치료한 일이 있었으며<sup>34)</sup>, 또한 사냥터에서 다친 김득부(金得富), 고귀충(高貴忠) 등 신하들을 치료하였다<sup>35)</sup>.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 등 여러 왕을 진료한 경험이 있었던 양홍달은 태종대에 황엄(黃嚴)을 치료한 바가 있었으며<sup>36)</sup>, 박석명(朴錫命)의 위독한 병에 그를 치료하기 위해 왕명으로 파견된 적이 있었으며<sup>37)</sup>, 조청과 함께 황희(黃喜)의 병을 치료한 바도 있었으며<sup>38)</sup>, 좌의정(左議政) 하륜(河崐)이 병들었을 때에도 진료를 하였으며<sup>39)</sup>, 세종대에는 좌의정(左議政) 박은(朴崐)의 병을 진료한 바가 있었다<sup>40)</sup>. 양홍수는 세종대에 옥천(玉泉) 부원군(府院君) 류창(劉敞)이 병이 나자 그를 진료한 바가 있었으며<sup>41)</sup>, 정사(正使) 이낭중(李郎中)이 천만과 해수로 발작하여 증세가 중했을 때 왕명으로 약을 전해준 일이 있었다<sup>42)</sup>. 원학은 태종대에 경원부(慶源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곽승우(郭承祐)의 병을 치료한 바가 있었으며<sup>43)</sup>, 형조판서(刑曹判書) 윤향(尹向)이 사신으로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통을 앓자 왕명으로 파견되어 그를 직접 치료한 일이 있었다<sup>44)</sup>. 이중발(李中發)은 지려연군사(知閔延郡事) 이안길(李安吉)과 군사들이 전투에서 다쳤을 때 약품과 술 50병으로 이안길과 그의 군사들을 치료한 바가 있었다<sup>45)</sup>.

세종대 의원들은 신하뿐만 아니라 외국 사신, 즉 명국 사신도 직접 진료하였다.

세종 5년 명국 사신 진경(陳敬)이 병이 나자 양홍수가 가서 약을 쓴 일이 있었으며<sup>46)</sup>, 사신 장정안

(張定安)이 조선에 오는 길에 병이 나자 역시 양홍수가 약을 가지고 문안 한 일이 있었다<sup>47)</sup>. 세종대 의원들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명국 사신은 창성(昌盛)이었다. 창성은 『세종실록』에만 등장하는 인물인데, 세종 12년 창성이 각통(脚痛)이 있어 양홍수가 진병한 일이 있었으며<sup>48)</sup>,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가 태평관(太平館)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창성이 칭병(稱病)하고 자리에서 나가므로 의관 배상문이 그를 쫓아가 위문한 일도 있었다<sup>49)</sup>. 13년에도 창성은 윤봉(尹鳳)과 함께 병이 나자 박윤덕이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었으며<sup>50)</sup>, 그 다음해에도 조선에 머무는 때 병이 나자 다시 박윤덕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sup>51)</sup>. 세종 15년에는 명국 사신 맹날가래(孟捏可來)는 병이 나자 김려생(金麗生)의 진료를 받은 바가 있었으며<sup>52)</sup>, 최진(崔眞)은 조선에 사신으로 들어오다가 병이 났는데 박거가 찾아가 그를 진료하기도 하였다<sup>53)</sup>.

외국인 의원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요동의원(遼東醫員)인 하양(河讓)은 왕을 직접 진찰까지 하였으며<sup>54)</sup>, 명국 사신 창성은 의사인 모염(毛琰)을 보내 왕을 문안한 일이 있었다<sup>55)</sup>.

의원들의 진료활동은 왕을 비롯하여 왕가와 신하 및 명국 사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 외에도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서산(瑞山)의 윤(尹)인 이혜(李惠)가 여종을 찌르고 도망치자 의원 오상신(吳尙信)이 그 집에 가서 여종을 치료한 기록이 있었으며<sup>56)</sup>, 이복(李馥)은 황주(黃州) 등에서 병인들을 진료한 공로로 옷을 하사 받은 일이 있었으며<sup>57)</sup>, 임보중(任寶重)은 원평 교하에

34) 世宗 10년 7월 29일 2번째 기사

35) 世宗 14년 2월 23일 2번째 기사

36) 太宗 6년 5월 12일 1번째 기사

37) 太宗 6년 7월 6일 1번째 기사

38) 太宗 14년 3월 6일 3번째 기사

39) 太宗 16년 10월 29일 1번째 기사

40) 世宗 3년 7월 10일 2번째 기사

41) 世宗 3년 9월 11일 10번째 기사

42) 世宗 6년 10월 11일 3번째 기사

43) 太宗 10년 4월 11일 3번째 기사

44) 太宗 18년 5월 17일 2번째 기사

45) 世宗 4년 12월 19일 1번째 기사

46) 世宗 5년 8월 27일 3번째 기사

47) 世宗 13년 11월 29일 2번째 기사

48) 世宗 12년 7월 10일 1번째 기사

49) 世宗 12년 7월 22일 3번째 기사

50) 世宗 13년 8월 4일 3번째 기사

51) 世宗 14년 5월 27일 1번째 기사

52) 世宗 15년 윤8월 9일 1번째 기사

53) 世宗 15년 윤8월 7일 1번째 기사

54) 世宗 7년 윤7월 25일 3번째 기사

55) 世宗 15년 11월 3일 1번째 기사

56) 文宗 1년 2월 14일 2번째 기사

서 발생한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일도 있었다<sup>58</sup>). 김려생은 도의원(道醫員) 5인과 더불어 황해도 지역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구료활동을 한 일이 있었다<sup>59</sup>).

한편 의원들은 자신의 진료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므로 잘못된 진료로 인해 죄도 얹히 받았다.

태종 18년 2월에 양홍달, 조청, 원학, 박거 등이 성녕대군의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밀하게 진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조(刑曹)와 사간원(司諫院)의 직접 박탈 상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태종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의원으로 양홍달이 적임자라 하여 상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첩을 박탈을 면하도록 조치하였으나<sup>60</sup>, 결국 며칠 뒤에 양홍달은 파직하여 품계가 강등되었고, 원학, 박거는 전의조교(典醫助敎)란 한직으로 강등되었으며<sup>61</sup>, 결국 4월에 성녕대군의 병이 두창(痘瘡)이었는데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등 오진하고 진찰을 게을리 한 것을 이유로 양홍달, 조청, 원학, 박거는 의금부(義禁府)에 갇히게 되었다<sup>62</sup>. 또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양홍달, 박거, 원학 등이 경안궁주(慶安宮主)의 질병에 대해 의서에 논의된 적 없는 질병이라 아뢰었지만 경안궁주의 발병은 의서에서 위비(痿痺)로 칭하는 병이었음과 성녕대군의 죽음도 이들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일로 사헌부(司憲府)에서 양홍달, 조청, 박거, 원학 등의 참형을 건의하였으나 참형은 면하는 대신 양홍달은 폐하여 서인이 되었고 박거, 조청, 원학은 전의감 한직인 전의감영사(典醫監令史)가 되었다<sup>63</sup>. 박거는 소현왕후의 외삼촌인 안수산의 질병에 뜸을 잘 못 뜬 일로 고향에 안치되었고<sup>64</sup>, 전순의, 김유지는 영의정 강맹경의 병환에 약을 정성들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

하였으며<sup>65</sup>, 상의원(尙衣院) 김효생(金孝生)이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다가 빠져 죽은 일이 있었는데 오상신과 배상문이 제대로 구료하지 못했다하여 의금부에 하옥된 일이 있었다<sup>66</sup>. 전순의와 변한산은 문종의 증기치료를 제대로 못하였는데<sup>67</sup>, 단종 즉위 후 이 일로 전순의는 전의감청직(典醫監廳直)으로 변한산은 전의감영사(典醫監令史)로 강등되었다<sup>68</sup>.

## 2. 진료영역 이외 활동

진료영역 이외 활동으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의서편찬과 관련된 것이다.

『실록』에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은 노중례, 박윤덕 등이 향약방(鄉藥方)을 연구하여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며<sup>69</sup>, 『태산요록(胎產要錄)』은 노중례가 편찬하였다고 기록하였고<sup>70</sup>, 『의방유취(醫方類聚)』와 관련하여 김유지, 전순의 등은 편집을, 노중례는 감수를 하였다고 기록되었다<sup>71</sup>. 한편 황자후(黃子厚)는 의사는 아니지만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시절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을 인쇄하여 외방(外方)에 나누어 생명을 구제하도록 왕에게 건의한 일이 있었다<sup>72</sup>.

세종대 활동했던 의원들은 명국으로 떠나는 사신과 명국에서 오는 사신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명국으로 가는 사신이 된 경우도 있었다.

태종대 양홍달은 세자가 명국에 사신으로 갈 때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서 포함되었고<sup>73</sup>, 세종대 전인귀는 명국 사신 중 한 명이었으며<sup>74</sup>, 박윤덕은 절일사(節日使) 압물(押物)로 명국에 다녀온 일이 있었고<sup>75</sup>, 노중례는 절일사 압물로 명국에 다녀오면서

57) 世宗 23년 1월 14일 1번째 기사  
58) 世宗 30년 10월 16일 2번째 기사  
59) 端宗 2년 2월 19일 1번째 기사  
60) 太宗 18년 2월 7일 1번째 기사  
61) 太宗 18년 2월 23일 1번째 기사  
62) 太宗 18년 4월 4일 1번째 기사  
63) 太宗 18년 4월 6일 1번째 기사  
64) 世宗 16년 8월 20일 4번째 기사

65) 世祖 7년 4월 17일 2번째 기사  
66) 世宗 25년 6월 22일 4번째 기사  
67) 文宗 2년 5월 14일 2번째 기사  
68) 端宗 卽位年 5월 28일 1번째 기사  
69) 世宗 13년 6월 11일 3번째 기사  
70) 世宗 16년 3월 5일 3번째 기사  
71) 世宗 27년 10월 27일 2번째 기사  
72) 世宗 9년 9월 11일 4번째 기사  
73) 太宗 7년 9월 25일 2번째 기사  
74) 世宗 6년 3월 21일 2번째 기사

가져온 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왕에게 청한 일이 있었다<sup>76)</sup>.

이미 내의원 소속 의원이었지만 왕명으로 의학(醫學)을 배우는 일도 있었다.

세종대 전순의, 변한산, 김지는 왕명으로 당시 의술에 정통하다고 소문난 승(僧) 승태(崇泰)에게 의학을 배웠고, 돌아와 그 의술을 시행한 바 효험이 있었다고 하며<sup>77)</sup>, 단종대에 김지는 왕명을 받고 일본 사신이었던 승(僧) 희익(喜益)이 침구(鍼灸)와 의방(醫方)에 정통하다 하여 그 의술을 배운 바가 있었다고 한다<sup>78)</sup>.

중앙에서 활동한 의원들 외에도 지방에서 활동한 의원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김자견(金自堅)은 황해도 지역의 의원으로 상기생(桑寄生)을 진상하였으며<sup>79)</sup>, 최자운(崔子雲)은 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서 효자로 유명하다고 하였고<sup>80)</sup>, 구사경(仇思敬)은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 왜적과 싸운 일이 있었다<sup>81)</sup>.

직접 의료활동은 아니지만 질병에 효과가 있는 온천과 관련한 의원들의 활동도 다수 있었다.

태종대 양홍달은 왕의 질병에 온천이 효과가 있다고 아뢰었고<sup>82)</sup>, 세종대 배상문은 왕명으로 안질(眼疾)에 온천이 효과 있는지 평산(平山) 온정(溫井)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었으며<sup>83)</sup>, 양홍수도 안질에 온천이 효과가 있는지 운수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었다<sup>84)</sup>. 또한 조경지(曹敬智)는 중량포(中良浦)의 물이 따뜻하다고 하여 온천을 찾으려 파견되었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sup>85)</sup>, 노중례는 의방(醫方)을 상고하

여 온정신(溫井神)에 대한 제문을 올린 바가 있었고<sup>86)</sup>, 이에 전인귀가 온정신에 제사한 바가 있었다<sup>87)</sup>.

식의(食醫)와 마의(馬醫)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식의로는 서하(徐賀)<sup>88)</sup>와 최자운(崔子雲)<sup>89)</sup>과 최자타(崔自沱)<sup>90)</sup>가 있었고, 마의(馬醫)로 원치의(元致義)<sup>91)</sup>가 있었다.

기타 유순도(庾順道)는 의술로 관직에 진출하였다<sup>92)</sup>고 하나 『실록』에 그에 대한 기록은 음양술수(陰陽術數) 즉 천문학과 관련된 것만 기록이 있어 의원으로써의 활동기록은 없었다.

### III.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세종대 활동했던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구사경, 김려생, 김유지, 김자견, 김지, 노중례, 모염, 박거, 박윤덕, 배상문, 변한산, 서하, 소비, 양홍달, 양홍수, 오상신, 원지, 원치의, 원학, 유순도, 이복, 이중발, 임보중, 전순의, 전인귀, 정종하, 조정지, 조침, 조흥주, 최자운, 최자타, 하양, 황자후(가나다 순)

세종대 활동했던 의원들 중에는 단연 양홍달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 보인다. 그는 태조의 총애로 조선의 건국기부터 내의로써 활동하였고 세종대까지 활발히 활동해오다 결국 성녕대군의 죽음과 경안궁주의 질병을 잘못 처치한 이유로 서인으로 폐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초 왕은 1~2명의 의원에게만 의

75) 世宗 10년 4월 6일 4번째 기사

76) 世宗 12년 4월 21일 5번째 기사

77) 世宗 29년 5월 6일 1번째 기사

78) 端宗 1년 7월 15일 2번째 기사

79) 世宗 13년 3월 10일 3번째 기사

80) 世宗 17년 2월 12일 3번째 기사

81) 世宗 20년 10월 24일 3번째 기사

82) 太宗 2년 9월 19일 1번째 기사

83) 世宗 23년 1월 9일 1번째 기사

84) 世宗 23년 1월 19일 3번째 기사

85) 世宗 23년 11월 8일 1번째 기사

86) 世宗 24년 3월 17일 4번째 기사

87) 世宗 24년 3월 21일 1번째 기사

88) 世宗 9년 7월 27일 3번째 기사

89) 世宗 13년 10월 28일 5번째 기사

90) 世宗 23년 8월 7일 3번째 기사

91) 世宗 9년 7월 23일 1번째 기사

92) 世宗 7년 3월 29일 1번째 기사

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의원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직첩을 거두고 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궁중의 의원들이 왕 및 왕가 진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에 대한 진료까지 그 활동영역이 다양했음을 구체적인 기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명국 사신 창성이 자신이 데리고 온 의사 모임을 왕에게 보내 왕을 문안한 일이 있었던 사실처럼 명국 사신단에 이미 자국의 의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의사들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은 의문을 갖게 한다. 외교적 관례였는지 아니면 명국이나 조선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오진 및 오치는 그 책임이 뒤따랐다. 물론 문종대 문종을 잘 못 치료한 이유로 탄핵상소를 받는 의원들의 기사와 같이 의원들의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단종과 세조로 이어지는 정치적 사건을 통해 살펴봐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이 행한 오진 및 오치로 인해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서인이 되는 등 마땅한 형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활동 이외 영역에서 의원들의 활동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의서의 편찬 및 간행이다. 세종대 『향약집성방』, 『태산요록』의 편찬과 『의방유취』의 편집 및 감수가 있었고, 고려 때 서적인 『향약구급방』도 개 인쇄되었다.

의사가 명국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일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사신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명국에서 수입한 약재 진위여부를 감별하는 내용처럼 사신이 되어 명국에 갔었어도 의사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실록』을 통해 국왕의 질병과 관련하여 온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수 의료적인 식의, 마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세종실록』 기사에 등장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대상으

로 한 결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향후 『조선왕조실록』 전반에 걸쳐 기재된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기사들을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다면, 조선의학사를 더욱 다양하게 서술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References

1. Oh JH, et al.. The Lineage and Characteristic of Lee-HyungYik (李馨益)'s Burnchim (燔鍼). J. of Korean Medicine. 2009. 30(2).  
오준호, 외 3인.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2).
2. Bang SH, Cha WS, Kim NI. Consideration on the Paste Preparation Based on Entries from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J. of Korean Medicine. 2009. 30(4).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주요 외용제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3. Kim H. Study on the king's diseases in the first period Chosun Dynasty. Wonkwang Univ. Doctorate Thesis. 1997.  
김훈.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 Kim H, Lee HW. A Study on the Disease of King Seonjo of the Joseo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2).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5. Yun HR, Yun CY. Research on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of kings during middle Chosun Dynasty based on The Authentic Record of Chosu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1. 14(1).  
윤한룡, 윤창열.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한국사학회지. 2001. 14(1).
6. Lee HW. Study on the Diseases of King

- Hyeonjong, Sukjong, Gyeongjong,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Dongguk Univ. Doctorate Thesis. 2006.
- 이해웅. 朝鮮時代 顯宗, 肅宗, 景宗, 英祖의 疾病에 대한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 Lee HW, Kim H.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Gojong in the Choseo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1. 24(2).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高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한국역사학회지. 2011. 24(2).
  8. Lee HW, Kim H.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Cheoljong in the Joseo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2).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한국역사학회지. 2012. 25(2).
  9. Lee HW, Kim H.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Sunjong in the Joseo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3. 26(2).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한국역사학회지. 2013. 26(2).
  10. Kang DH. Observations of King Hyojong's medical archives through 『承政院日記 (Seungjeongwonilgi)』. Kyunghee Univ. Master's Thesis. 2010.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 Lee SW. Observations of King Hyeonjong's Medical Archives. Kyunghee Univ. Doctorate Thesis. 2011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 Yun SH. A Study of Relation between Hakjil Conception and Malaria. Kyunghee univ. Master`s Thesis. 2012.  
윤석희. 학질의 개념과 말라리아의 관계 연구 : 소현세자의 질병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3. Gu HH, Oh JH. A study on the bathing therapy utilized for disease treatment and public medical services of the Joseon Dynasty. J. of Korean Classics. 2012. 40.  
구현희, 오준호. 질병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된 조선시대 목욕요법 연구. 민족문화. 2012. 40.
  14. Song JC, Eom DM. A Study on Medical Persons in King Sejong Period -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3).  
송지청, 엄동명. 조선(朝鮮) 세종대(世宗代) 의원(醫員)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15.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cited as on 1~30 September 2015]  
조선왕조실록. 검색일 2015.09.01.~30.

